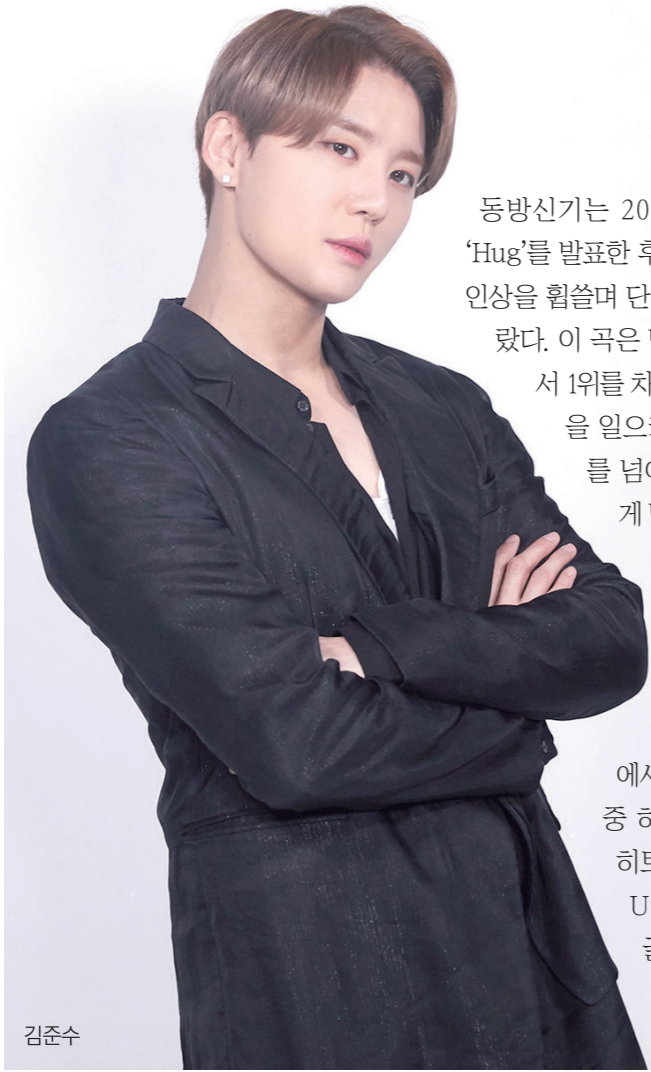


JYJ 김준수, 세밀 '발라드&뮤지컬' 콘서트로 대중 앞에 선다



김준수

동방신기는 2004년 1월 첫 싱글곡 'Hug'를 발표한 후 음악차트를 석권, 신인상을 휩쓸며 단숨에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이 곡은 당시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 가요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동방신기를 국내를 넘어 한류스타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또한 동방신기는 아시아 그룹 및 남성가수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오리콘 위클리 차트에 올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히트곡으로는 'The Way U are' 'Drive' '트라이앵글' 'Rising Sun' '풍선' '주문' 등이 있다. 동방신기 멤버들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성 대신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 활동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김준수 역시 성 대신 '시아'를 붙여 '시아준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시아'는 '아시아'에서 따왔으며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자'라는 의미와 '더 나아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자'라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후 2009년 동방신기 멤버 중 심창민, 정운호를 제외한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은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문제로 팀을 탈퇴했다. 이듬해 세 멤버는 기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씨제스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겨 각각 이니셜을 딴 3인조 남성그룹 'JYJ'를 만들었다.

김준수는 JYJ 활동은 물론 뮤지컬, 솔로 활동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춤, 다방면에서 재능을 뽐내왔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뮤지컬에 집중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10년 김준수는 자신의 첫 뮤지컬 데뷔작 '모차르트'에서 18세기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역을 맡아 역동적인 삶을 표현해내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뮤지컬 '천국의 눈물' '엘리자벳' '디셈버' '드라큘라' '데스노트' '엑스칼리버'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대표 배우로 우뚝 섰다.

김준수는 뮤지컬 활동을 이어간다. 20일 전주를 시작으로 뮤지컬 '엑스칼리버' 4개 도시 지방 투어로 관객들을 만난다. 내년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같은 공연이 예정돼 있다.

'엑스칼리버'는 아더왕의 전설을 새롭게 재해석해 단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라인과 쟁쟁한 출연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김준수는 소년 '아더'역을 맡아 성인을 거쳐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가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많은 사람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얼 레지던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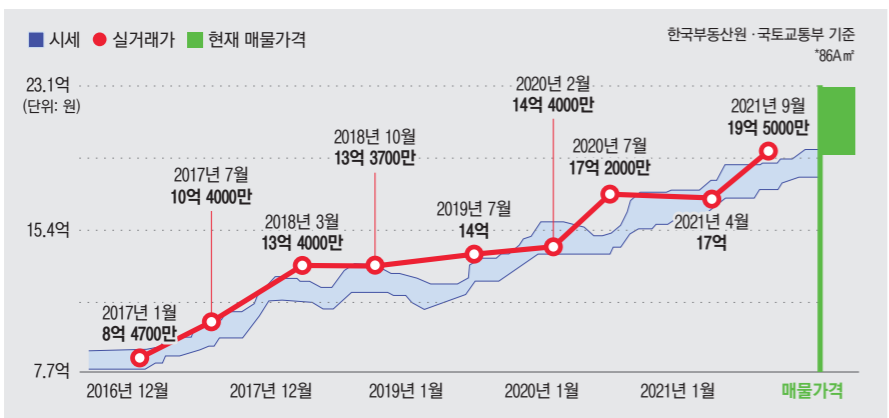
아일랜드'를 설립,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명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평소 좋아하던 식물 이름에서 착안,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락한 터전'을 지향한다. 또한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는 과정이 빛나는 결실을 이루고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김준수는 TV조선 K팝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마스터(심사위원)로 활약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코엑스 Hall D에서 개최되는 연말 콘서트 '2021 XIA Ballad & 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 Vol. 7'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준수는 지난 11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아름다운 이별을 결정하고 1인 기획사 '팜트리아일랜드'를 설립했다. 이동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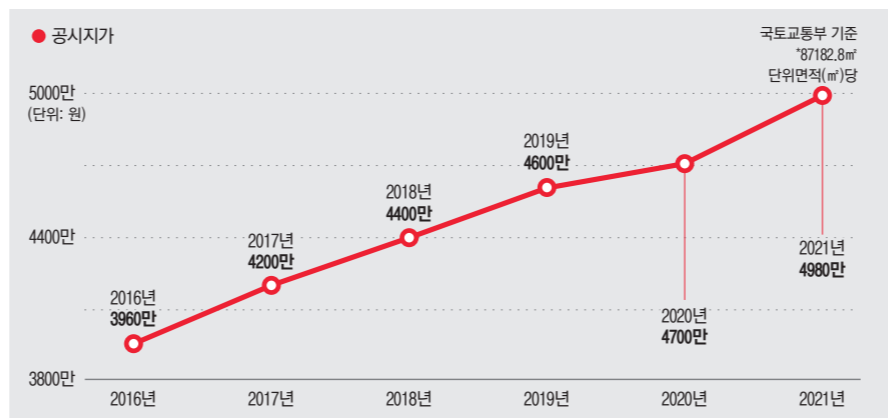
잠실파크리오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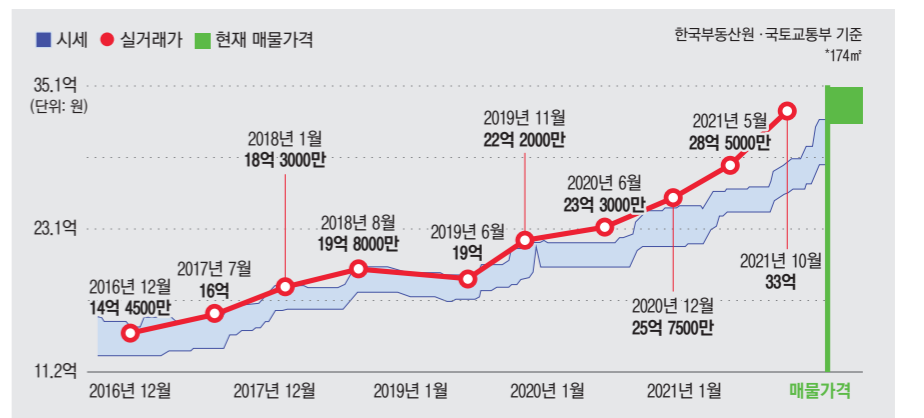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얼 레지던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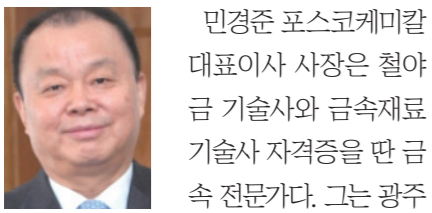


잠실파크리오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민경준 현)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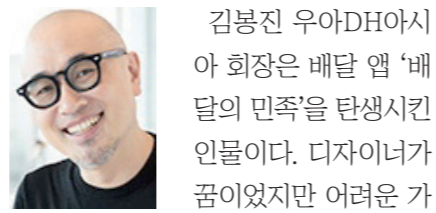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은 철야금 기술사와 금속재료 기술사 자격증을 딴 금속 전문가다. 그는 광주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서 금속공학 석사 및 금속 및 소재공학 박사학위, 캐나다 맥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수료했다. 민 대표는 1984년 포스코에 입사해 현재까지 35년 이상 몸담아오며 광양제철소 열연부장, 품질기술부장, 압연담당 부소장 등을 지냈다.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을 맡으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2018년 중국 장가항 포항불수강유한공사 법인장 부사장을 지내 생산과 해외영업에도 능통하다. 2019년 12월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로서 선임돼 포스코그룹 신사업의 중심인 2차전지 소재사업을 이끌고 있다.



김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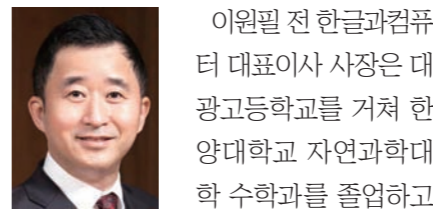


현)우아D&A아시아 회장 김봉진 우아D&A아시아 회장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디자이너가 꿈이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예술고 대신 수도전기공고 전자과를 택했다. 이후 서울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디자인그룹 이모션에서 디자이너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네오위즈와 네이버에서 웹디자이너를 거친 김 회장은 어느날 문득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키워드를 '배달'로 정했다. 그는 '전단지 말고 앱으

로 음식을 배달시키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직접 전단지의 식당 정보를 모아 2010년 6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탄생시켰다. 현재 그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이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설립한 합작회사인 '우아D&A아시아'의 회장을 맡아 아시아 15개 지역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원필



이원필 전 한컴과컴퓨터 대표이사 사장은 대광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한국 IBM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한 그는 IBM에서만 28년간 기술, 서비스, 해외사업, 마케팅, 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거치며 IT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그는 2014년 한컴과컴퓨터 부사장으로 합류해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경영관리 등을 총괄했다. 2016년 3월 대표이사로서 승

진해 "한컴의 자력을 극대화 하여 국내외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컴과컴퓨터는 전 세계 오피스 시장 90%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응하는 유일한 국내 업체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18일 개통... 서울진입 수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울교통공사는 18일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남위례역은 기존 북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규모로 8호선의 유일한 지상역으로 복선이자 상대식 승강장 구조로 건설됐다. 남위례역은 4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지은 역이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사인 공사가 건설 사업을 시행해 2020년 초 착공해 서울에 말 준공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시내버스·자가용 등을 통해 멀리 떨어진 북정역·지역·마천역·거여역 등에서 전철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번 남위례역 개통으로 바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강남과 잠실 등 서울 주요 부도심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위례역의 일평균 이용객수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잠실역까지는 환승 없이 약 15분, 강남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위례역은 2008년 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도 관련 대책이자 서울시 경전철 사업계획 중 하나로 건설하는 경전철 위례선의 환승역으로 예정돼 인근 지역의 환승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 거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한 만큼 안전 운행과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8호선은 1996년 11월 23일 잠실↔모란을 시작으로 1999년 7월 2일 암사↔잠실 구간이 개통됐으며 현재는 암사↔모란(총 17.7km) 구간이 운행되고 있다.

여기에 8호선은 이후 별내선(암사↔별내) 연장도 예정돼 있어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잇는 주요 도시철도 노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부동산 생태정원'으로 탈바꿈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는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2 연차별 실시계획을 기초로 사업 건의서를 만들어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했다.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 결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신양파크호텔 관련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사업은 연차별 계획으로 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부지 및 기존 객실을 활용한 숙박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문화교육을 위한 복합예술공간 등을 건설한다. 시는 지난달 3일 대시민 현장보고회를 통해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3대원칙 및 활용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의 난개발을 막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유화 3대원칙은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조성 △무등산권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중심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이다. 아울러 민관정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무등산 생태시민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양파크호텔의 기존 건축물은 보존하되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생태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시민호텔 등으로 활용

하기로 했다. 또한 12층은 문화·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시민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설계공모 등을 통해 폭넓은 세부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재욱 시 도시계획과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관정의 협치행정으로 무등산권의 난개발을 막고 신양파크호텔을 누구나 찾아와 머무를 수 있도록 시민에게 들려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국비 확보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난달 3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신양파크호텔 및 부지 활용방안 대시민 현장 중간보고회 단체 사진.